

# 第十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開會式 民國二十三年十一月二十日(水) 上午十一時

## 開會式

### 一、開會

○國會對하여敬禮

### 二、愛國歌奉唱

### 三、式辭

### 四、式辭

### 五、致辭

### 六、萬歲三唱

### 七、閉會

國會議長 大 統 領

(上午十一時十分開會)

(曹仲瑞總務局長司會)

### ○總務局長(曹仲瑞) 지금부터 第十回國會 定期會議 開會式開始 하겠읍니다

(一同 國旗에對하여敬禮)

(一同 愛國歌奉唱)

### ○總務局長(曹仲瑞)議長으로부터 式辭가있겠읍니다

## 開會 辭

우리는 우리祖國의 安危가 判定되리는 暴風雨의 危難속에 第十回定期國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六五事變으로 內亂의 瘡痍가 그대로 남아있고 中國의 中絶이라는 外賊이 侵入하였으니 우리 앞에는 一難의 재난이 기다리고 서서 더 一難의 災禍가 기다리고 서서 있습니다.

가서나 不測不豫의 禍患으로 國家를 打倒하여 야만 國民의 委比에 瓜分의 災禍가 임할 것입니다. 國民의 命은 四二八三의 國難을 爲始한 幾多의 不幸性의 毒藥을 먹어 버린 것이니 우리 國民의 志一同이 戰時國會의 精神을 나타내야만 있어서 國家의 生命을 強調하여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一面戰爭 一面建設에 邁進하여 努力하여야 하겠읍니다. 지금 國難은 一步를 그치지 않으면 全民族의 滅亡과 永絶한 奴隸의 境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國難을 참고 버리며 全國全國家에 集中시켜 U.N과 協力하여 外敵을 驅逐하는 同時에 匪患을 討平하고 밖으로 外敵을 驅逐하는 同時에 內와 아울러 戰火로 破壞된 國家建設의 復興을 爲함에 不退의 決意와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勿論至難한 일이나 우리는 여러우면 여러우면 더욱 強靱한 精神力을 發揮하여 國民의 命을 救할 수 있고 國家의 發展을 圖할 수 있습니다. 東洋의 格言에 「多難興邦」이라는 말이 있으니 나라에 여러 難은 勃亂이 많으면 그 나라는 試鍊을 통하여 振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確實의 戰前의 難局을 當하였으니 우리나라가 國民의 總智能과 努力을 기울이면 이 試鍊을 이겨내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둘째는 이 試鍊에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나라를 民主主義의 原則에서 發展強化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自由를 尊重하여 그 自由를 尊重하여 國家를 建設하는 同時에 全國民의 命을 救할 수 있는 바입니다. 自由하야 國難에 勇을 버릴 수 있고 自由하야 國難에 勇을 버릴 수 있습니다. 自由하야 國難에 勇을 버릴 수 있습니다. 自由하야 國難에 勇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강화시키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國難을 克服하는 方向으로 邁進하여야 합니다. 國民의 命을 救할 수 있고 國家의 發展을 圖할 수 있습니다. 國民의 命을 救할 수 있고 國家의 發展을 圖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政治家들은 U.N을 비호한 모든 會合에서 侵略을 討平하는 戰火의 擴大을 防止하고 努力하고 있읍니다. 國難의 克服은 容易한 일입니다. 國民의 命을 救할 수 있고 國家의 發展을 圖할 수 있습니다.

○國民代表의 提議로 國會의 開會式이 禮記四二八三 十一月二十日 禮記四二八三 十一月二十日

날 大統領閣下에서 오시기도 되었으니까  
오시리라 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서 잠깐 그대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大統領 入場)  
(一同起立 拍手)

○大統領(李承晚) 議長 國會議員이려본 第十  
回國會를 開會함에臨하여 特別히 나로서傳해드  
릴 말씀은 없고 또 지금 뒤우치신 것이 있다 하드라  
도 지금 危難中에 나라를 保護해가지고 우리  
民族과 다같이 살자는 그것만이 唯一한目的이  
므로 國會에서본들도 이런 危急한것을 아시고

무슨일이든지 些少한일에 關係하는것은 다 停  
止해주시고 여기에對해서 全的으로 여기에만  
努力들하시고 議論하시는 것으로만 하라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떠한 要請하는 것은 國會에서  
權威가 憲法上 權威있는것만 要請하시오 國會  
에서나 政府에서나 나라도爲해서 나라를 살리자  
고하는때에는 누구나 다 權利가 있을것입니다

나라에 妨害되는일이나 하면 對內對外에서 政府  
以下로 누구든지 여기에 실자리가 있을것입니다  
누구든지 徹底히 생각하시고 些少한것을 停止  
해주시고 政府에서 작하거나 못하거나 다 뒤  
에서 좋게해서 힘들게가지고 한바탕한것으로나  
가야 된다는것을 힘써주시기를 付託합니다 여기  
분에게 付託할餘地없이 여기분이 다아실것입니다

다 지금 戰勢로말하면 내가 日前에 東北方面  
에 春川과 原州를가서 一一히 拜訪한일이있  
습니다 우리 一練軍人들의 氣運이 다墮落되어  
어려운形便에있는것으로 생각올하고있는때 우리

軍人將校들은 자꾸싸워서 前進해나가서 추운前  
面에서 三八線에當到해가지고 三八線에서 「토  
치카」를 몇배동안 만들어놓고 그놈들이 「토치  
카」속에서 潛伏해가지고있기때문에 敵軍이四方  
에서 統을놓기때문에 거기에 불고올라가지못하  
고있다가 우리軍人들이 陣營에는 作定을하고서  
은大砲를 五百名의軍人이 은大砲를잡아다가 참  
으로 끌어다놓고 發射거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싸워놓고서 거기에 「토치카」라는것은 다 破壤  
시켜서 몇사발만발이 인제는 이것은 破壤시켜  
놓고 空軍이 航空軍이가서 爆彈을 發射하는때  
地下에 「콘크리트」로 덮기때문에 어떤수없는  
것을잡다가 지금 大砲로해서 破壤시켜는다

음에 우리가 앞집이러져서 밀고 올라가겠다고  
士氣가 熱烈하고 조금도 墮落의거나 어떤것  
이 없는것을보니까 또 여기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前面의 모든士氣가 그렇다고하는것을  
나로서는 實은興深된 氣運을가지고 조금도 憂  
慮없다는것을생각합니다

戰線에는 戰線을제쳐서 그戰線을 앞으로 놓고  
지켜가지고나오는바람에 서울은 여러十萬大兵이  
들어온다하더라도 여간해가지고는 흔들리지않을  
것을 確實히 믿고있는것입니다 「유엔」軍도  
熱烈하게나가서 어디까지든지 여기를 護步안하  
겠다고하니까 이만한 軍人들이있으면.....  
中國共産軍이 처음에 大多數가 鴨綠江을건너를

데에 많이들어오면 어떻게할까 憂慮했다고그래  
요 얼마를 接續한다음에는 共軍이라는것은 憂  
慮할것없으니까 그런것에 問題가안된다고합니다  
一齊히 그랬습니다 그사람들만이 인제도 여기

에남아있는 傀儡軍이라는것이 中國共産軍보다强  
하고 지금이때도 얼마憂慮되는 이 무엇이있지  
만 中國共産軍이라는것은 많이있다하더라도 絕  
對로 憂慮가없다고 그러고있어있는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問題는 내가 물어본結果 배가고  
프나 추우나하니까 아무걱정말라고그때요 한가  
지는 軍人들이 山上에올라가있는때 그山頂에서  
밤을만들어가지고 「개기」를만들어가지고 덩어  
리를만들어가지고 광구위에떨어가지고 지게에지  
고 거기에 올라가니까 三、四時間 어떤때에는  
다섯時間까지 軍人들 먹이는바탕으로 밥이일  
어서 얼음덩어리가떨어가지고 불을피가지고 노  
커가지고먹을려고하니까 大部分은 얼음을먹는다고  
그때요 반찬이라는것은 「개기」한명어려다가  
하루에 所謂 日人들이만든 「무장아지」가없으  
니까 무를 조금에넣가지고 저러가지고 거기에  
두조각씩조각을 그것을먹고 배가고주지않다고하  
는데 한잔씩먹을 물으면 밥을 더먹겠다고해서  
間食이라고 먹겠다고하는때 이고저해 新聞記者  
에게 얘기물었더니 日前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各地方에서 모두 間食같은것을 만물어가지고  
무엇을넣서 올려보내면 間食이라고 조금있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一般의 弊端이 안된다고해서  
新聞에 그런것을내서 해보라한것입니다 또한가  
지 그사람한테 얘기할것은 담배를 먹고싶어  
서..... 어떤때에는 밥은못먹어도 참지만 추운  
때 무엇유할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때 어떤때  
에는 葉草를보내워서 이것을가지고서 종이에서  
서 담배처럼 피고있으니까 담배만 좀먹을수있으  
면 큰도움이되겠다고해서 여기新聞記者에게도애

기할 것입니다. 승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반기지 않게 되고 軍人들에게 담배를 줌의 우를 해수요이면 중용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만 해도 日前에 「트루만」大統領이 非常令發布한 뒤에 따라서 美國사람들에게 한달이 우리의 稅를 면감케 하여야 되었고 子恩을 軍士가 내보내야 되었고 飲食의 節約을 해서 우리의 節約해가지고 앞의 軍人들에게 戰爭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겐 면여야 되었고 해서 宣言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威激한 생각이 無할 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美國사람들은 여러 萬名의 軍人을 보내서 싸우는 이때에 美國의 全土로 稅納을 용하고 自己의 稅를 줄 것 같은 節約을 하고 機械廠에다가 밤낮으로 軍器軍物을 製作해 내서 나오는 대로 여기대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때가지고 軍士를 全國의 募兵을 하는 데 며칠 안이면 四百萬大兵을 만을기로 作定을 했읍니다. 이때에 「맥아더」將軍이 考慮하고 앉은 것은 美國의 戰爭을 「유엔」名義로 戰爭하고 있어서 「유나이티드 케이션」名義로 戰爭을 하는 때 「유나이티드 케이션」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退兵을 하는 나 「합푸로마이」의 所聞을 해가지고 支障이 되는 것을 美國當局에 있는 사람이 憂慮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아더」將軍의 決心과 「트루만」大統領의 決心이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아나까 할 것으로 各人의 各人이라든가 各人의 各人이라든가 말을 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공까지 싸워나갈 것이 아니라만 「트루만」은 다만 退兵하는 것은 우리의 韓人들의 態度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韓人들의 政府

에서나 「트루만」이나 民間에서나 우리가 다들 내 할 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지고 들들이 취수명을 찾어서 내면에 살을 하고 있으면 남의 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소리를 듣고 부르는 것은 六、二五의 情形과 지금과는 判異해서 美國國軍이 二十萬大兵이 있어 가지고 熱烈하게 싸워나가는 자답으로 強兵이라 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유엔」軍이 三十萬大兵이 있어 가지고 美國의 第一最新 新式으로 만든 軍器, 軍物은 다 여기에 나와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부 鐵道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美國의 高等戰術家 將校들이 지난 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歐羅巴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東洋을 쳐내 놓고 歐羅巴 에 보내줘야 되겠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大勢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國防力이 어떻게 強한 軍人이 우리의 民族性이나 海外의 도울은 勢力이나 어떻게 強하게 되어본적이 歷史上 없는 것입니다. 이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이 恐怖心을 가지고 自己하나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뒤를 밀려고 이터가고 저터가고 하는 것은 남보기에 창피하고 우리가 熱烈하게 싸워나갈 可能性이 없다고 하면 友邦들이 代身을 해서 우리들이어나게 만을 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議員 여러분이나 다구나 밤낮나라를 위해서 努力하시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할 하고저 하는 것은 各個人이나 全體가 나가서 民間思想과 精神을 鼓吹시켜서 우리가 中共軍의 틀어오너까 하는 것이고 이리저리 避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各人의 各人을 위해서 다 말씀해 「트루만」

도 만을 어가지고 敵軍이 틀어오면 우리 처야 되겠다는 決心을 가지고 奮闘히 美國國軍의 뒤를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戰時는 當대가지고 아무다론애 거가 없는 것입니다. 참해서 이겨서 나라의 命運을 나라의 運命을 保存해야 되니 거기에 다른 異論이 없고 異論을 붙인다는 것은 無識하고 愛國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適切히 이번엔 開會하시거든 다른 些少한 자들은 다 停止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軍人들의 앞을 保護해서 民衆들이 받들어서 士氣가 문드해서 外國 軍人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熱烈하게 해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없다고 하고 우리 愛國精神을 내쳐 一層더 奮力해서 軍士도 더 많이 나오게 하면 우리가 軍器, 軍物이 더 많이 붙어와서 우리가 速히 움직여서 鴨綠江以北으로 밀어내고 그 런 뒤에는 蘇聯이 世界大戰을 決定하려고 하면 그때는 大戰이 鴨綠江以北에서나도록 만을 하는 것이 우리의 計劃입니다.

나는 더 準備한 이야기 없고 率直한 말을 여러분께 肝膽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에게 宣布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만 한 決心을 가지신 줄 아니까 이 런 때에는 唯一한 目的을 먼저 가지고 더 많은 功勳과 推進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付託합니다.

(大統領 退場)  
(一同 起立拍手)

○總務局長(曹仲端) 萬歲三唱이 있겠습니다  
副議長(趙下峇) 先唱하시겠습니다

(曹奉岩副議長先唱으로 萬歲三唱)

○總務局長(曹仲端) 이것으로서 閉會하겠습니다

(上午十一時五十五分散會)